



### 농협 순창지부-순창소방서, 쌀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와 순창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순창소방서에서 '순창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및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쌀 과잉재고로 심각해진 농업·농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으로 이병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이상일 순창소방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 쌀로 만든 떡으로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또한, '순창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식'을 통해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순창군에서 생산된 쌀과 쌀 가공 제품을 각종 행사 등에서 적극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쌀값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침! 밥심! 쌀심!"을 구호로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진안군, 드림스타트 아동·부모 대상 경제교육

진안군은 지난 24일 드림스타트 참여 19가정을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금융똑똑 경제똑똑' 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예탁결제원(KSD) 나눔재단과 연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아이들의 용돈 관리 지도 및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소 용돈으로 간식만 사 먹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처럼 돈을 아껴 저축도 하고, 용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돈을 사용하고, 저축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실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 드림스타트에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부모교육, 가족힐링캠프, 정서·인지·언어치료 등 아동의 문제 및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남원소방서, 영유아 스마트 119 구급 서비스 운영

남원소방서는 관내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 서비스' 운영으로 지역 내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3월부터 법정 희귀질환, 소아암, 발달장애, 소아당뇨 등 특이질환을 보유한 만 6세 이하 환아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구급 서비스이며, 이번 영유아 특이질환 맞춤형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신규 운영으로 119신고 시 출동 구급대원에게 맞춤형 사전 질병 정보가 전달돼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 선정이 가능해진다.

안동춘 대응예방과장은 "서비스 신청 방법은 소방서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며, 특이질환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응급의료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경찰서, 현안업무 공유 위한 소통 간담회

진안경찰서(서장 송승현)에서는 지난 23일 회의실에서 송승현 서장 주재로 각 과장과 지역 관서장 및 계·팀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업무 공유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 범죄 및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강력범죄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과 치안 문제점을 공유, 다방면의 방법 협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시행하기로 논의했다.

특히 중요범죄 신고의 경우 지역관서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지휘 상황 보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서장은 관내에서는 "물자마 흥기 범죄" 같은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관서장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치안 활동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세포 내 단백질 변형, 인공지능 통해 예측 가능

전북대 정길도 교수팀, 연구 논문 SCIE급 저널 최신호에 발표

단백질의 변화를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한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대학교 정길도 교수팀(공대 전자공학부)이 인공지능을 통해 단백질 변형을 예측한 연구 논문을 SCIE급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타이라 히랄 교수(국제이공학부), 팔리스타 세레스타 통합과제생(전자공학부, 지도교수 정길도), 칸들지반 박사과정생(에너지-AI 융합공학과)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팀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PTMGPT2' 모델을 통해 단백질의 변화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생체 내에서의 단백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작동되는가를 파악했다.

이로 인해 그간 변화 예측이 어려웠던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생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알 등의 발생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활용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치료용 단백질 설계에도 적용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인 정길도 교수는 "우리 연구팀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해 단백질 변형을 예측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정길도 교수팀(사진 왼쪽부터, 칸들 지반, 정길도 교수, 히랄 타이라, 팔리스타).

능을 활용해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적 변형을 예측해냈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단백질 이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신약 개발로 인류복지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그래피티와 힙합의 만남... '정읍 그래피티 페스타' 성료

정읍시는 지난 24일, 정다운상권 내 그래피티 거리에서 2024 정읍 그래피티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낮 시간에는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저녁에는 버스킹과 힙합 공연, EDM 공연이 이어져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래피티 거리에서는 벽 프리드라이, 바디페인팅, 티셔츠 컬러링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돼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공연을 스포츠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그래피티 거리를 널리 알렸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그래피티 페스타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정다운상권의 매력을 더욱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80억원이 투입



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잠재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주비전대, '링투유' 통해 몽골서 봉사활동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18~24일 7일간 전공연계 봉사단 '링투유'를 통해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링투유는 2023년 시작된 국내외 전공 직무 연계 재능기부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순천 교촌마을에 이어 몽골 울란바토르와 테를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전주비전대를 비롯해 가톨릭상지대, 구미대, 군장대, 동서울대, 동의과학대, 명지전문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지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한양여자대 등 13개 전문대학이 참여했다.

각 학교의 참여학생 및 교직원들은 몽골 MIU 국제학교와 허스오양가 학교에서 벽화그리기, 메이크업, 헤어, 간호, 네일, 물리·작업치료·재활, LED전구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리스크 활동을 제공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300그루의 나무도 심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순천제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과 학생들과 협력해 LED 등을 설치했다. 울란바토르 MIU 국제학교에서는 트리전구 활용을 통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해 지역 주민과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허스오양가 학교에서는 태양광 LED등 설치와 울타리 페인트칠을 통해 학교 환경을 개선했다. /정은성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전주매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 돌봄 행정 강화 '호응'

남원시 산동면(면장 지양근)이 취약계층 돌봄 행정을 더욱 강화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동면은 1일 1가구 소용 행정 추진 시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돌봄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여름철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폭염 대책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대비 냉방용품(선풍기, 쿨키트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가가호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적 지원을 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지양근 면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 지키기에 중점을 두고, 행복한 산동면 만들기에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 동향면 지사협, 밀반찬 나눔 행사 추진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옥연)는 26일 면 체육회 사무실에서 동향면 문화공간 담쟁이 후원금 150만원을 활용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밀반찬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향면 지사협은 올초부터 현재까지 41가구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4차례에 걸쳐 밀반찬을 전달했다.

이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회원들이 돼지불고기, 열무·얼갈이김치, 도라지 오징어무침 등 3가지 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노인 41가구(대량리 6, 신승리 8, 대량리 2, 자산리 15, 능금리 5, 학산리 5)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 밀반찬을 전달했다.

한편, 동향면 지사협은 2020년 3월 발족돼 2021년 이장협의회 및 23개 단체, 개인 등의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밀반찬을 전달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기후원자와 일시 후원자를 모집해 2024년 현재 정기후원자가 102(7.5%)명에 이른다.

또한 주민들의 소통으로 후원을 독려하여 후원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후원금이 많이 모여질 경우 밀반찬 사업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임실군, 시니어 안전전문가 3기 교육 마쳐

임실군이 지역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임실행복나눔센터에서 시니어 안전전문가 양성 과정 3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안전 지도사로 활동 중인 2기 수료생들과 함께한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사례 발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3기 과정은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전문가 양성에 필수적인 이론과 실습을 포함했으며, 올해부터는 이전 기수 대상자들의 보수교육이 추가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수료생들은 생활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총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16명의 시니어 안전전문가가 배출됐으며, 이들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 지역의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교육이 지역 인적 자원 양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 태흥축산, 용지면 취약계층 가구에 에어컨 설치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유)태흥축산 양종석 대표가 26일 에너지 취약 계층 가구에 벽걸이 에어컨을 후원하고 직접 설치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가구는 주택이 노후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세대로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발굴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는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 관내 기업체의 지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양종석 태흥축산 대표는 "폭염에 선풍기로만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좋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광운 용지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항상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주신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양종석 대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죽산면 여성의용소방대, 계란 50판 기탁

김제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여성 의용소방대(대장 정미향)가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항생제 계란 50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평소에도 죽산면의 화재 예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히 무더위 지친 이웃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한 판에 25,000원 상당의 무항생제 계란 50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계란은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수급자,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